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2월호

Contents

<요약>	2
I. 일본 무역 동향	3
1. 한일 무역 동향	3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6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0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10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1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4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4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6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9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9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4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7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8,019	11.4	44,255	3.6	3,764
일본 부분	2,228	-8.5	3,942	24.6	-1,714
일본 비중	4.6		8.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2020년 1월	2021년 1월	증감률
수출(백만\$, %)	5,431,202	5,779,567	6.4
수입(백만\$, %)	6,746,313	6,104,942	-9.5
수지(백만\$, %)	-1,315,111	-325,375	-75.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6,655	-1,879	8,536	4,038	18,687	7,410
한국 부분(억\$)	505	97	319	85	119	50
한국 비중(%)	7.6		3.7	2.1	0.6	0.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0년 12월 8일, 2021년 1월 12일,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월	2021년1월	증감률		2020년1월	2021년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272,708	58,397	-95.4	전체	2,661,022	46,500	-98.3
방한 일본인	203,969	1,299	-99.4	방일 한국인	316,812	2,500	-99.2
일본인 비중	16.0	2.2		한국인 비중	11.9	5.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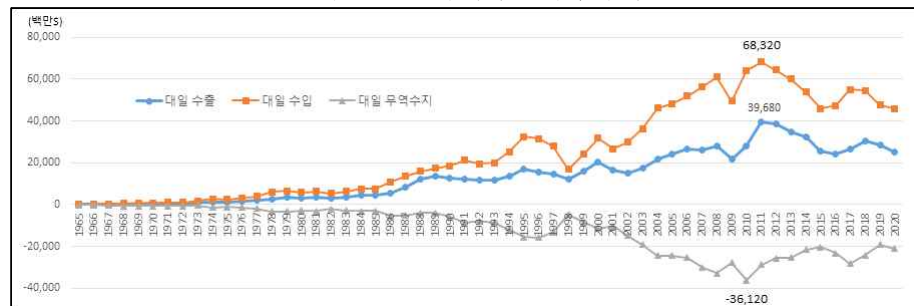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으며,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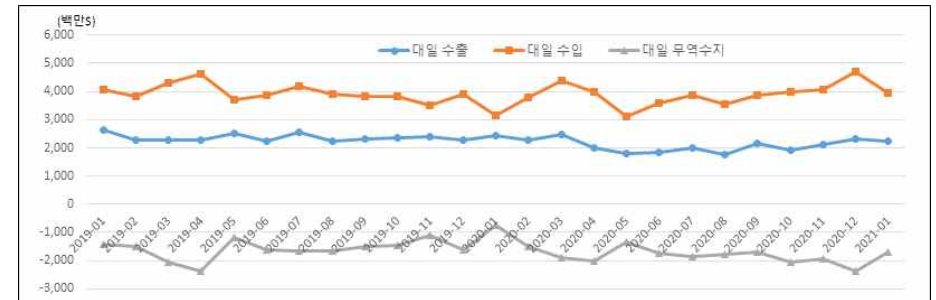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최근 몇 개월간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월 감소 후 6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8.5%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24.6%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8,019	11.4	44,255	3.6	3,764
일본 부분	2,228	-8.5	3,942	24.6	-1,714
일본 비중	4.6		8.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1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11.4%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8.5% 감소하여 22.3억 달러가 됨
- 2021년 1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3.6%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24.6% 증가하여 39.4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37.6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7.1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8.9%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1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품목 수가 수출은 5개인 반면, 수입은 7개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1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월(백만\$, %)			2021년 1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435	-7.0	-729	2,228	-8.5	-1,714
1	철강제품	309	-25.6	-84	340	10.1	18
2	광물성연료	465	21.5	433	312	-32.9	263
3	정밀화학제품	186	-1.9	-120	180	-3.5	-156
4	전자부품	132	-10.9	-326	152	15.2	-479
5	산업용전자제품	121	1.8	-71	133	9.6	-120
6	금속광물	103	37.4	54	132	27.8	58
7	석유화학제품	151	-4.4	-98	107	-29.2	-124
8	농산물	87	-15.7	74	87	0.4	69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7	-14.2	-10	78	-10.3	-21
10	수송기계	111	-3.9	-47	68	-38.8	-6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1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월(백만\$, %)			2021년 1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163	-21.9	-729	3,942	24.6	-1,714
1	정밀기계	224	-37.1	-168	670	199.8	-629
2	전자부품	458	-11.1	-326	631	37.9	-479
3	정밀화학제품	306	-21.9	-120	336	9.9	-156
4	철강제품	392	-28.9	-84	322	-18.0	18
5	산업용전자제품	191	-13.2	-71	253	32.5	-120
6	석유화학제품	248	-18.5	-98	231	-6.8	-124
7	플라스틱제품	167	-7.3	-104	186	11.5	-124
8	기초산업기계	140	-16.3	-65	169	21.2	-104
9	산업기계	131	-29.3	-68	132	1.4	-69
10	수송기계	157	-35.9	-47	128	-18.4	-6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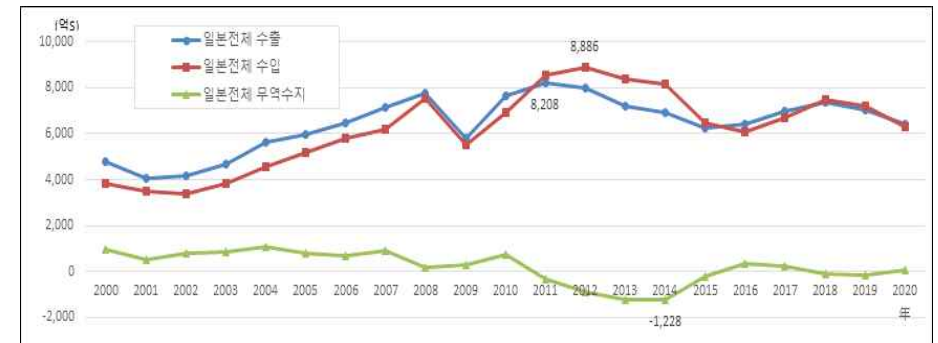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금속광물(27.8%), 전자부품(15.2%) 등 5개 항목이 증가하였고, 수송기계(-38.8%), 광물성연료(-32.9%) 등 5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정밀기계(199.8%), 전자부품(37.9%), 산업용전자제품(32.5%) 등 7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수송기계(-18.4%), 철강제품(-18.0%), 석유화학제품(-6.8%) 3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3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6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상황

	2020년 1월	2021년 1월	증감률
수출(백만¥, %)	5,431,202	5,779,567	6.4
수입(백만¥, %)	6,746,313	6,104,942	-9.5
수지(백만¥, %)	-1,315,111	-325,375	-75.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반도체제조장치,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의 증가, 그리고 자동차, 광물성연료, 선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여 5조 7,796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통신기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조유(原粗油), 의류 및 의류부속품, 석유 제품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하여 6조 1,049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가 75.3% 감소하여 3,254억 엔의 적자가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금액이 증가한 국가도 감소한 국가도 있지만, 수입 경우는 금액이 감소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2%, 수입의 53.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1,278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3%, 수입의 28.2%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4,870억 엔으로 42.0%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7.2%, 수입의 4.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483억 엔으로 78.6%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4%, 수입의 4.2%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740억 엔으로 75.3%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7.3%, 수입의 9.6%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4,152억 엔으로 12.2% 증가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2.5% 감소하였고, 수입은 변동 없었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43.3%, 수입은 19.6% 감소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5,779,567	100.0	6.4	6,104,942	100.0	-9.5	-325,375	-75.3
아시아	3,365,827	58.2	19.4	3,238,056	53.0	-4.4	127,771	-
중국	1,232,676	21.3	37.5	1,719,669	28.2	-0.9	-486,993	-42.0
홍콩	293,468	5.1	17.2	9,689	0.2	-9.8	283,779	18.4
대만	414,028	7.2	21.7	265,717	4.4	3.4	148,311	78.6
대한민국	429,386	7.4	15.5	255,423	4.2	-6.2	173,963	75.3
싱가포르	151,944	2.6	-9.8	71,144	1.2	-12.5	80,800	-7.3
태국	262,687	4.5	11.5	212,804	3.5	-0.9	49,883	138.6
말레이시아	131,924	2.3	17.9	161,908	2.7	-15.3	-29,984	-62.2
인도네시아	86,806	1.5	-15.9	141,115	2.3	-13.8	-54,309	-10.2
필리핀	77,721	1.3	-9.6	80,161	1.3	-9.1	-2,440	11.5
베트남	138,856	2.4	16.2	208,298	3.4	-10.7	-69,442	-38.9
인도	96,643	1.7	11.4	49,231	0.8	-16.3	47,412	69.4
대양주	146,032	2.5	-12.6	406,300	6.7	-5.6	-260,268	-1.1
호주	119,080	2.1	-2.7	369,022	6.0	-4.8	-249,942	-5.8
뉴질랜드	19,080	0.3	24.3	16,598	0.3	-11.7	2,482	-
북미	1,071,668	18.5	-5.4	686,132	11.2	-11.2	385,536	6.9
미국	1,001,518	17.3	-4.8	586,293	9.6	-14.0	415,225	12.2
캐나다	70,150	1.2	-13.5	99,071	1.6	10.5	-28,921	237.1
중남미	230,006	4.0	-2.5	239,887	3.9	-9.7	-9,881	-66.9
서유럽	625,455	10.8	-10.3	793,857	13.0	-4.9	-168,402	22.7
독일	158,436	2.7	-2.5	209,083	3.4	0.0	-50,647	9.0
영국	82,508	1.4	-43.3	56,241	0.9	-19.6	26,267	-65.2
프랑스	51,406	0.9	-2.3	86,097	1.4	-6.5	-34,691	-12.1
네덜란드	100,645	1.7	6.2	28,194	0.5	4.3	72,451	6.9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26,998	2.2	0.0	141,044	2.3	-15.3	-14,046	-64.5
중동	141,515	2.4	-19.3	508,799	8.3	-37.2	-367,284	-42.2
아프리카	72,065	1.2	-6.3	90,854	1.5	17.6	-18,789	5574.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경우는 증가 품목이 감소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수입 경우는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수출 경우는 식료품(41.8%), 화학제품(23.6%), 원료품(17.3%) 등 7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수입 경우는 광물성원료(-40.3%), 수송용기기(-8.7%) 2개 품목만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가 높은 화학제품의 경우 세부적으로 유기화합물의 수출이 7.3% 감소한 반면, 의약품과 플라스틱의 수출이 각각 24.8%, 30.4%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수송용기기(20.4%), 전기기기(10.6%), 원료품(2.4%) 3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원료(-26.9%), 기타(-15.1%), 식료품(-13.9%) 등 6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감소기여도가 높은 광물성원료의 경우 세부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수입은 19.3% 증가하였지만,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석탄의 수입이 각각 41.8%, 33.0%, 7.3%, 22.1% 감소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5,779,567	100.0	6.4	6.4	6,104,942	100.0	-9.5	-9.5
1 식료품	65,761	1.1	41.8	0.4	495,109	8.1	-13.9	-1.2
2 원료품	91,363	1.6	17.3	0.2	415,357	6.8	2.4	0.1
3 광물성원료	72,033	1.2	-40.3	-0.9	1,100,238	18.0	-26.9	-6.0
4 화학제품	788,723	13.6	23.6	2.8	628,857	10.3	-11.1	-1.2
5 원료별제품	632,452	10.9	6.0	0.7	545,522	8.9	-8.8	-0.8
6 일반기계	1,082,121	18.7	12.5	2.2	626,010	10.3	-6.2	-0.6
7 전기기기	1,061,170	18.4	13.3	2.3	1,134,035	18.6	10.6	1.6
8 수송용기기	1,212,142	21.0	-8.7	-2.1	298,574	4.9	20.4	0.8
9 기타	773,802	13.4	6.8	0.9	861,240	14.1	-15.1	-2.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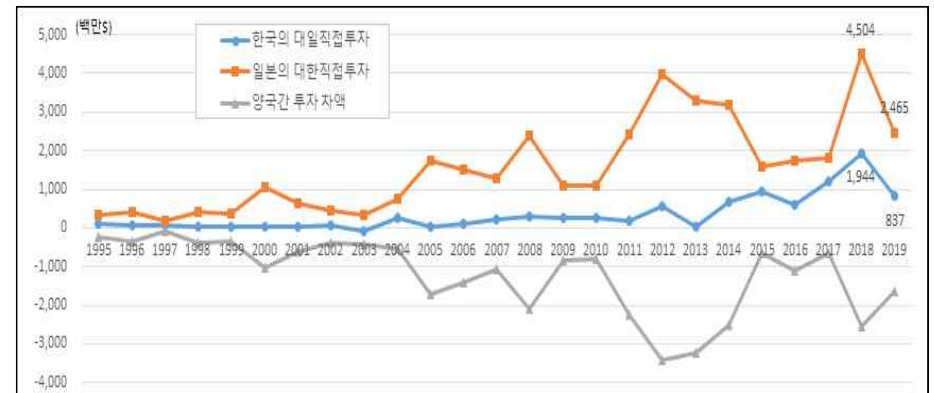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6,655	-1,879	8,536	4,038	18,687	7,410
한국 부분(억\$)	505	97	319	85	119	50
한국 비중(%)	7.6		3.7	2.1	0.6	0.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0년 12월 8일, 2021년 1월 12일,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11월에는 8,536억 엔(실행 29,954; 회수 21,418)이었으나, 12월에는 18,687억 엔(실행 47,027; 회수 28,339)으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1월 319억 엔(실행 503; 회수 183)에서 12월 119억 엔(실행 297; 회수 178)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서 0.6%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11월에는 4,038억 엔(실행 26,736; 회수 22,698)이었으나, 12월에는 7,410억 엔(실행 36,247; 회수 28,836)으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1월 85억 엔(실행 92; 회수 6)에서 12월 50억 엔(실행 886; 회수 836)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0.7%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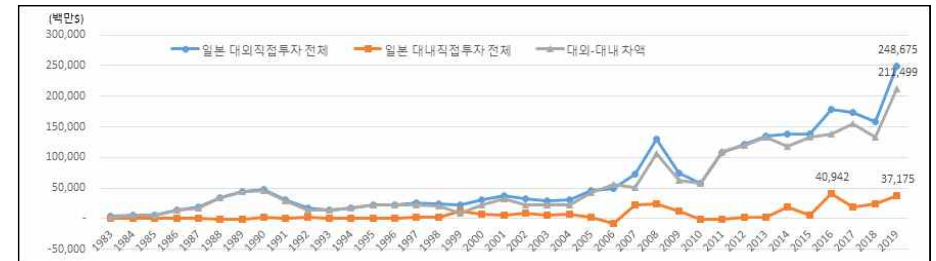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0년 12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18,687억 엔, 대내직접투자 7,410억 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8,687억 엔(실행 47,027; 회수 28,339)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유럽(40.6%), 북미(32.3%), 아시아(23.0%)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5,864억 엔), 네덜란드(2,791억 엔), 스위스(2,202억 엔), 중국(1,498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410억 엔(실행 36,247; 회수 28,83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유럽(62.9%)과 아시아(52.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북미, 중남미, 대양주 경우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스위스(2,840억 엔), 싱가포르(1,252억 엔), 중국(1,151억 엔), 홍콩(1,024억 엔) 등으로부터 투자가 많았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0년 12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18,687	100.0	7,410	100.0
아시아	4,304	23.0	3,900	52.6
중국	1,498	8.0	1,151	15.5
홍콩	716	3.8	1,024	13.8
대만	53	0.3	31	0.4
한국	119	0.6	50	0.7
싱가포르	620	3.3	1,252	16.9
태국	334	1.8	355	4.8
인도네시아	333	1.8	-4	—
말레이시아	95	0.5	18	0.2
필리핀	87	0.5	10	—
베트남	322	1.7	0	0.0
인도	208	1.1	4	0.1
북미	6,038	32.3	-927	-12.5
미국	5,864	31.4	-935	-12.6
캐나다	175	0.9	8	0.1
중남미	276	1.5	-141	-1.9
대양주	654	3.5	-88	-1.2
호주	637	3.4	-88	-1.2
뉴질랜드	-11	-0.1	2	0.0
유럽	7,593	40.6	4,663	62.9
독일	275	1.5	129	1.7
영국	1,179	6.3	265	3.6
프랑스	159	0.9	138	1.9
네덜란드	2,791	14.9	603	8.1
중동	0	0.0	2	0.0
아프리카	-179	-1.0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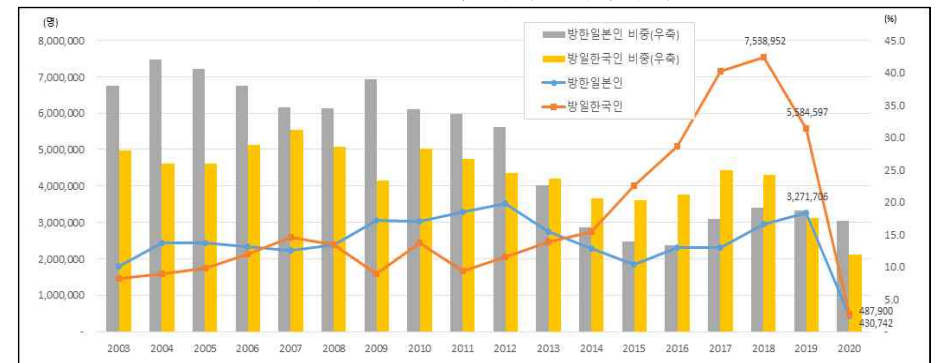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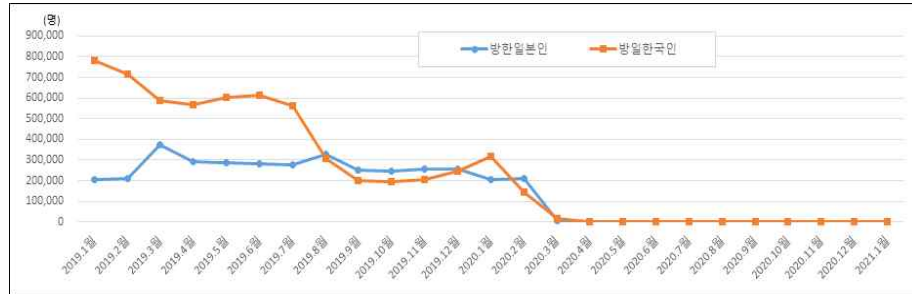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나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감소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0명, 2021년 1월 2,5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월	2021년1월	증감률		2020년1월	2021년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272,708	58,397	-95.4	전체	2,661,022	46,500	-98.3
방한 일본인	203,969	1,299	-99.4	방일 한국인	316,812	2,500	-99.2
일본인 비중	16.0	2.2		한국인 비중	11.9	5.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1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58,39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4%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29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4%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1월 16.0%에서 2021년 1월 2.2%로 감소하였음
- 1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4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3%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2%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1월 11.9%에서 2021년 1월 5.4%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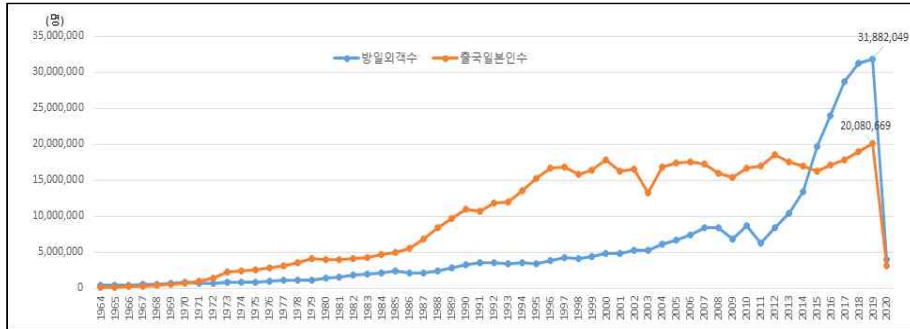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00만 명과 약 314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1월 상황

- <표10>은 2021년 1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방일외객수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1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4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3%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5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9.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0,200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8.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200명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20,000명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0.3%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200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9.0% 감소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1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2월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2,661,022	100.0	46,500	100.0	-98.3
한국	316,812	11.9	2,500	5.4	-99.2
중국	924,790	34.8	10,200	21.9	-98.9
대만	461,239	17.3	600	1.3	-99.9
홍콩	219,358	8.2	200	0.4	-99.9
태국	112,534	4.2	700	1.5	-99.4
싱가포르	30,180	1.1	90	0.2	-99.7
말레이시아	44,829	1.7	200	0.4	-99.6
인도네시아	37,540	1.4	900	1.9	-97.6
필리핀	53,588	2.0	1,000	2.2	-98.1
베트남	50,424	1.9	20,000	43.0	-60.3
인도	13,884	0.5	900	1.9	-93.5
호주	85,314	3.2	100	0.2	-99.9
미국	117,343	4.4	1,200	2.6	-99.0
캐나다	28,931	1.1	100	0.2	-99.7
멕시코	4,641	0.2	60	0.1	-98.7
영국	24,320	0.9	300	0.6	-98.8
프랑스	16,481	0.6	600	1.3	-96.4
독일	11,189	0.4	400	0.9	-96.4
이탈리아	6,921	0.3	200	0.4	-97.1
러시아	8,399	0.3	200	0.4	-97.6
스페인	5,157	0.2	200	0.4	-96.1
중동지역	4,265	0.2	100	0.2	-97.7
기타	82,883	3.1	5,750	12.4	-93.1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2월 19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6	0.3	-4.8	-10.3	-5.8	-1.2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8	-2.1	-3.4	-2.9	-2.1	-1.2	-1.3	-3.0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총지출(수송기계제외)	3.9	-5.8	-10.0	-12.7	-19.8	-1.8	-1.8	4.0	-6.4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1.5 -9.9	80.9 -12.4	81.3 -10.1	80.5 -7.0	81.3 -8.3	81.9 -3.7	78.4 -9.0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5.5	4.2	7.0	8.5	11.1	3.3	10.6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11.8 -6.6	-25.1 -4.8	-14.9 -11.4	-1.9 P -3.4	-1.6 -5.7	-4.0 -2.4	-0.1 P -2.1	P 5.3 P -4.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10.1	-19.8	-12.8	-3.2	-3.0	-3.9	-2.6	
<법인경상이익-계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46.6	-28.4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7,773 -7.2	1,837 -11.4	2,021 -7.3	1,751 -20.8	624 -20.0	569 -21.7	558 -20.7	474 -38.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8	2.8	3.0	3.0	3.1	2.9	2.9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1.2 0.0	-2.3 0.1	-0.8 0.2	-2.1 -0.8	-2.1 -0.4	-2.3 -0.9	-2.0 -1.2	P -1.6
<금융> 넷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2,705 106.73	20,784 107.61	22,906 106.20	25,194 104.49	23,451 105.24	25,384 104.40	26,772 103.82	28,189 103.70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1월, 2021년 2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
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12월 전월대비 2.4% 감소함

- ‘가계조사’ (12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9%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2월)에서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대비 0.7% 감소함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심리는 약세 상태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분야에서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출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증 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증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7-9월기는 전기대비 1.2%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 감소, 비제조업이 1.3%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체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어느 쪽도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한 인식이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을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12월 전월대비 4.3% 감소하여 연율 78.4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전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12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0.9% 증가, 1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7.4% 증가, 12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1.6%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전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고 있음
 -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EU 쪽 수출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회복되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월의 방일외객수는 전년동월대비 98.3%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어 있음
 - 12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12월에 전월대비 1.0%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2월에 전월대비 1.1%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월은 전월대비 8.9% 증가, 2월은 전월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보합 상태이고, 생산용 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전자 부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새로운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신중함이 보이고, 도산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상장기업의 2020년 10-12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이 제조업은 전년대비 이익증가, 비제조업은 전년대비 이익감소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13.2% 감소, 하반기에 전년대비 4.1%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43.4% 감소, 하반기에 전년대비 25.3%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중함이 보임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3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12월 558건, 1월 474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12월 1,385억 엔, 1월 813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2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2.9%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보합권대로 되어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현금급여총액은 연말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 감소로 약세로 되었는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연말상여 감소의 영향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1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월에는 전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하여 65.4%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대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엔고-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8,800엔대에서 27,600엔대까지 하락한 후 30,200엔대까지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3엔대에서 105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4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6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2%대에서 -0.00%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5.7%(1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8.9%(1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9.4%(1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2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2월 19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개혁 및 그린 사회 실현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대해서는 2월 2일에 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선언 대상을 2월 8일 이후에는 10개 도부현(都府縣)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기간을 3월 7일까지 연장하였고, 계속 감염확대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책을 철저히 함
 -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구체화 하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과 더불어, 2021년도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조기 성립을 위해 노력함
 -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예비비도 활용하여 기동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COVID-19 관련 대응

- 긴급사태선언 연장 및 백신접종
 - 일본 정부는 2월 2일 도쿄도 등 11개 도부현(都府縣)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선언을 도치기현을 제외한 나머지 도부현을 대상으로 1개월간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함
 - 긴급사태선언 대상인 10개 도부현에서는 오후 8시까지 음식점 운영시간 단축 요청, 불필요한 외출 자제 요청 등의 조치가 계속되며 상황이 개선될 경우 기한 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함
 - 2월 23일 오사카, 교토, 효고 3부현(府縣) 지사는 온라인회의에서 긴급사태선언에 대해 2월 말 해제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음
 - 2월 26일 일본 정부는 기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6부현에 대해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승낙되면 대책 본부에서 월말 해제를 결정할 방향임(이후 실제, 위 6부현에 대해서는 2월 28일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고,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치바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선언이 3월 21일까지 연장됨)
 - 한편, 2월 16일 COVID-19 백신인 미국의 화이자 제품이 의료기관에 반입되었으며, 2월 17일부터 의료 종사자 4만여 명에 대해 선행 접종이 진행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2.02.; 2021.02.23.; 닛케이신문, 2021.02.16.; 아사히신문, 2021.02.26.)
- COVID-19가 영향을 미친 일본 가계조사 및 2020년 무역통계
 - 일본 총무성이 2월 5일 발표한 2020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COVID-19의 감염이 확대된 영향으로 여행 관련, 외식, 의류 등의 항목에 대한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 ‘교양·오락’, ‘교통·통신’, ‘피복·신발’, ‘정장’, ‘여성복’, ‘교제비’, ‘외식비’ 등의 지출이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음
 - 반면에 ‘가구·가사용품’, ‘광열·수도’ 항목의 경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났음
 - COVID-19는 일본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0년 일본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1%, 수입액은 13.8% 감소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크 등이 포함된 섬유제품 외에 바나나, 냉동식품, 냉동고, 트레이닝 용품 등의 수입액이 늘어났는데, 이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가전제품의 생산 거점인 중국에 대한 플라스틱 수출, 해외 국가들에 대한 인스턴트커피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해외에서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와인, 타피오카 등의 품목은 음식점 불황,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임
- COVID-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출입과 소비, 지출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출처: 닛케이신문, 2021.02.05.; 마이니치신문, 2021.02.10.)

□ 일본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

- 조선업·해운업 지원 및 탈탄소화 관련 정책
 -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2월 5일 각의 결정되었음
 - 조선업은 국가 인증을 받으면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 융자, 기술개발 보조금, 신회사 설립 시 세금 부담 경감 조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업 경우는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세대 선원들이 정착하기 쉽도록 조치가 취해짐
 - 일본 정부는 2월 5일 탈탄소로 이어지는 설비투자의 세제혜택 등을 제도화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개정안을 결정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도 세제면에서 지원하고, 온라인 주주 총회를 해금하는 제도 개정도 포함시켰음
 -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의 회수, 저장도 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출자나 채무 보증의 대상에 추가함
 - 일본 정부는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 연료를 2030년에는 일본 국내에서 연 300만 톤, 2050년에는 3000만 톤 소비하는 목표를 세움
 - 암모니아를 석탄 등과 섞어 화력발전에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나,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발전 코스트 상승에 대한 대책도 불가결함

(출처: NHK, 2021.02.05.; 닛케이신문, 2021.02.05.; 2021.02.13.; 2021.02.21.)

- 홋카이도와 후쿠시마의 탈탄소화
 - 환경성의 탄소 제로 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시는 2030년 비휘발유차 비율을 60%, 연료전지차는 2030년까지 3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삿포로시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차를 활용하며, 2020년 1개소인 수소 충전소도 4개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임
 - 에너지 소비를 실질 제로로 하는 ZEH(Zero Energy House)나 소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ZEB(Zero Energy Building) 성능을 가진 건축물의 비율은 2030년까지 신규 건축의 8할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2월 8일 ‘후쿠시마 신에너지 사회구성 실현회의’에서 후쿠시마에 전력의 전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공업단지를 2030년도까지 조성할 방침임
 - 트럭 등을 연료전지차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며, 이와키시 연안에 수입된 수소를 육지로 옮겨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
 - 홋카이도 물류개발(삿포로시)은 2021년~2022년 국가 보조를 받아 실증 실험을 하여 설비나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 2023년에 홋카이도 이시카리시 내 식품 자동판매기 전용 배송에 전기자동차나 전동리프트를 도입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1.02.06.; 2021.02.08.; 2021.02.19.; 요미우리신문, 2021.02.07.)

□ 한일 관계

- 강제징용 배상 및 한일 관계 관련 조사 결과
 - 강제징용 배상 관련 자산 압류에 대한 명령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하였으나, 한국 대전지법이 즉시항고 중 특허권에 관한 일부를 기각하였음
 -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2월 18일 당사에서 만나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2월 1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 여론조사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답이 40.4%로 나타났음
 -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외무성 담당자는 한국 드라마나 K-pop의 유행이 한 요인이라고 말했음

(출처: NHK, 2021.02.16.; 닛케이신문, 2021.02.18.; 아사히신문, 2021.02.20.)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반도체산업 동향

○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산업 관련 동향

- 일본 반도체 대기업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다이알로그 세미컨덕터’에 인수를 제안하고 경영진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다이알로그 세미컨덕터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전용 등 폭넓은 분야의 반도체 설계를 다루고 있으며, 르네사스로서는 반도체 종류를 늘려서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만적체전로제조(TSMC)는 2월 9일 일본 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투자액은 최대 186억 엔으로 고성능 3차원 집적 회로(IC)의 제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
- COVID-19 감염 확대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PC와 데이터센터 등에서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반도체 업계는 TSMC 등 수탁생산 기업의 생산라인을 놓고 경쟁전이 벌어지고 있음
- 일본이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치나 재료 메이커에 있어서도 고객인 TSMC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재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TSMC 등 세계 첨단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거점 신설을 타진해 왔으며, TSMC는 미중 무역·과학기술 대립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분산이 일본 연구개발 거점 신설의 목적으로 보임

(출처: NHK, 2021.02.08.; 산케이신문, 2021.02.09.; 아사히신문, 2021.02.10.)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동향

○ 일본 기업들의 탈탄소 관련 동향

- ‘일본철강연맹’은 2월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에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철강 업계는 일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 철강 업계의 탄소 배출 실질 제로를 위해서는 제철 시 사용하는 코크스(탄소)를 수 소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베제강소는 2월 16일 제철 과정에서 코크스 사용량을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0% 삭감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 일본의 철강 업계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일본 국내 수요 저하와 중국 세력의 대두 등에 의한 수익 저하 외에도 ‘탈탄소’라는 경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카본 프라이싱’에 대해 기업의 개선통발에 의해 탈탄소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음

(출처: NHK, 2021.02.04.; 아사히신문, 2021.02.17.)

○ 기업들의 탈탄소화 대처 동향

- 미쓰비시제지는 종이 수요의 축소로 본업이 어려워지는 상황 하에서 탈탄소를 계기로 하여 환경 소재에 활로를 찾음
- 미쓰비시제지는 종이펄프 사업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퍼레이터 등의 특수 자재 매상고를 2025년도에 60억 엔으로 배증시킬 계획임
- 대기업 종합상사들에서 석탄이나 원유 개발 사업의 재검토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매각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상사, 스미토모상사 등은 석탄 화력 발전 분야의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할 방침임
-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IHI)은 호주 전력회사 CS에너지와 공동으로 호주 현지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수소 제조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는 검토를 시작했다고 2월 3일 발표했는데, 호주는 일조 시간이 길고 태양광 발전에 적합해 그린수소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음
- 엔지니어링 그룹인 치요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카타르의 액화 천연 가스 플랜트를 개발하는 수주를 받았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2.03.; 2021.02.09.; 아사히신문, 2021.02.17.; 닛케이아시아, 2021.02.09.)

○ 탈탄소화와 자동차 산업 관련 동향

-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판매의 전동화(電動化) 100%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전동차(電動車)의 중심은 당분간 엔진과 모터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차가 될 전망이다
-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 상황 등에 따른 전방위형 전동화 전략을 채택함
- 일본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으므로 전기자동차의 급속적인 보급은 환경부하를 가중시키고 여름철 전력을 부족하게 할 수도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나, 전지 조달 비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음
-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차량이 좁아지기 쉬운 결점이 있으며, 연료전지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수소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이 보급에 걸림돌임
-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는 탈탄소화와 전기자동차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2.03.; 2021.02.09.; 아사히신문, 2021.02.17.; 닛케이아시아, 2021.02.09.)